



경남 밀양·함안·창녕

깊은 역사 깊은 불심 '발전의 힘'

효와 충정의 도시 밀양. 임진왜란, 정유재란 등에서 혁혁한 전공을 세우고 나라를 위기에서 구했던 사명대사 탄생지인 밀양은 유난히 불교세가 강한 곳이다. 인구 12만의 밀양은 사찰 수가 3백 곳을 훌쩍 넘겼고 하루가 다르게 사찰이 생겨나고 있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 파악이 불가능할 정도라고 하니 불교세가 어느 정도 인지를 짐작케 한다.

300여 곳에 이르는 사찰 수에 비해 교회 수는 78 곳. 게다가 몇 년 전부터 교회 증설이 멈춘 상태이며 전국에서 가장 기독교 전도가 안 되는 곳일 정도로 불심이 강한 도시로 통한다.

함안의 경우도 7만 인구에 102개의 사찰을 자랑한다. 창녕은 3만 인구에 사찰 수 70여 곳에 이르며 도로를 따라 가다보면 어느 도시에서는 보기 드문 잘 정돈된 사찰 표지판이 창녕의 불교세를 대변해 준다.

이처럼 불교세가 강한 것은 영남의 일반적인 분위기이지만 밀양, 창녕, 함안은 타 지역에 비해 인구대비 사찰 수가 많은 편이며 대를 이어 절에 다니는 가족 불심들이 많은 곳이기도 하다.

밀양 밀양의 어느 아파트. 87곳 세대에서 70% 이상이 절에 다닌다. 교회에 다니는 집은 열 세대에도 못 미친다. 이 아파트는

밀양의 분위기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렇게 밀양의 불교세가 강한 원인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지만 사명대사 탄생지라는 역사적인 자긍심에서 유래하는 듯. 그래서 사명대사의 영정이 모셔져 있고, 불·가을로 사명대사를 기리는 행사가 열리고 있는 표충사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진다.

표충사는 현 주지 혜오 스님 부임 이후 많은 변화를 이뤘다. 서래각선원을 복원, 다시 열었고 재가자들이 위한 무료 선방인 대중시민선원도 운영하고 있다. 서래각선원은 효봉 스님이 입적한 곳으로 그 전까지 주지실로 사용되던 공간이다.

기름보일러, 심야전기 보일러, 나무 때는 아궁이 등 전후 시설을 갖춘 서래각선원은 한국 불교 인재를 양성하겠다는 포부가 담긴 밀양 불교의 노력에 해당되는 곳. 조선왕조가 멸망한 후 500년이 지난 뒤에 표충사에서 도인이 100명 나온다는 <조선왕조실록>의 기록 때문일까. 혜오 스님의 선종 진작을 위한 노력이 예상하지 않다. 참선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뭐한다고 벽만 쳐다보고 앉아 있다' 하는 일반의 의구심을 사기도 했고, 한때 밀양불교 전반을 주도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표충사의 변화는 이제 시민선방의 활성화로 새로운 불교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며 밀양 불교에 정면의 바람을 일으키는 변화를 예고하고

있다.

도실에서 불교의 생활화, 현대화를 주도하는 옹공사의 활약도 돋보인다. 옹공사는 밀양 유일의 조계종 인가 불교교육기관이자, 전국에서 가장 많은 수의 우수한 교수진이 강의를 펼치는 밀양불교대학 설립의 중추적 역할을 했다. 또한 <조선>이라는 사보를 발행, 문서 포교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특히 <조선> 발간 3주년을 기념해 시작한 노인초청 위안잔치 및 이웃을 위한 한마당은 현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자리 잡으며 지역민에게 다가서는 불교의 이미지를 굳히는데 한 몫 했다.

또한 매달 한번 밀양불교합창단과 함께 펼치는 밀양경찰서 유치원 생일 찾아주기를 펼치고 있으며 향후 노인복지사업, 유치원 운영 등의 계획을 세워 놓고 있다.

그러나 밀양불교는 현재 깊은 고민에 빠졌다. 불교세가 강하다고는 하지만 기타 종단이 90% 이상을 차지하는 특성상 결집이 어려운데다 이렇다할 구심점을 찾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사명대사의 탄생지라고는 하지만 사명대사의 호국 불교를 시대에 맞게 재조명할 제대로 된 학술대회 하나 없고, 말뚝 불심의 구심점이 될 불교회관조차 없다.

그래서 일본에서 더욱 활발하게 진행중인 사명대사 연구를 거울삼아 사명대사의 뜻을 기리는 학술

대회를 개최, 학자와 학예연구원 등의 인재를 양성하는 길을 모색하는 한편, 밀양만의 특색을 살린 불교 중흥을 위한 변화를 모색하고 있다.

함안 군 단위로서는 상당히 많은 사찰 수를 자랑하는 함안은 88년 창립된 함안군불교연합회를 중심으로 활동이 펼쳐지고 있다. 함안군불교연합회가 펼치는 대표적인 연중행사는 4·8봉축 행사, 6·25 전몰군경 합동위령제, 연말 탁발대회 등이다.

특히 올해로 9회째를 맞이한 전몰군경 합동 위령제는 여항산 전투에서 목숨을 잃은 2천여 명의 희생자를 비롯한 호국 영령들을 천도하고 유가족을 위로하는 행사. 매년 군 관계자, 상이군경회, 미망인회 등에서 1천여 명이 참여하는 행사로 불교행사에서 국가적인 행사로 자리매김해 가고 있다.

창녕 장마면의 지석묘(고인돌), 창녕읍, 계성면, 영산면 등에서 발견된 고분군들이 창녕의 오랜 역사를 대변한다. 그만큼 창녕엔 고찰이 많고 창녕 술정리 동삼층석탑을 비롯 국보 2점과 관룡사 대웅전, 약사전 등 보물 9점을 포함해 불교문화재가 경주 다음으로 많은 곳이기도 하다.

1600년 전통의 관룡사는 보물을 4점이나 보유한 사찰로 역사적 가치와 더불어 누구에게나 활짝 열려있어 시대적 요구에도 잘 부합하고 있다.

지역민을 위해 사찰이 존재해야 한다는 정안 스님의 지론에 따라 소외된 이웃을 위한 나눔에 적극적인데. 뿐만 아니라 정초에는 산림법회를 열어 화엄경, 지장경, 금강경 등의 경전을 심도 있게 공부하는 수행도량으로도 널리 알려져 창녕, 마산에서도 찾아오는 불자들이 있다.

또한 통도사 창녕 포교당인 인왕사는 창녕 유일의 불교고양대학을 운영하며 농촌 실정에 맞는 포교 방안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불교고양대학 동문들로 구성된 자원봉사 모임을 경로당 청소, 독거노인 밀방천, 도시락 배달 등으로 불교계의 대사회 봉사활동을 선도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 포교를 위한 유치원 불사를 발원하고 있으며 신도 중심으로 재정을 투명하게 관리하며 도심포교당의 역할을 다하고 있다.

그러나 창녕불교 발전을 위해서는 풀어야 할 숙제가 있다. 종단 간 불협화음 해소와 지역을 위한 불교의 역할과 위상 정립이 그것. 종단화합을 통해 지역을 위한 일에 소극적인 사찰의 힘을 결집해내는 일이 창녕 불교발전의 선결과제로 남아 있다.

밀양·함안·창녕=천미희 기자 mhcheon@buddhapia.com



밀양 옹공사의 노인 초청 잔치 및 이웃을 위한 한마당.

밀양 사명대사 출생지 '자부'

함안 호국불교 전통 잇기 분주

창녕 농촌포교·복지 불사 앞장



창녕 관룡사를 찾은 불자들이 주지 정안 스님과 차담을 나누고 있다

540년만에 서래각선원 복원

혜오 스님
밀양 표충사 주지
해동종 종장

"도대체 선이 무엇이고, 견성성불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 어보시오." 혜오 스님의 관심사는 오로지 한 가지, 선종진좌이다. 주지 소임을 맡자마자 540년 만에 서래각선원을 복원했고, 재가불자들에게 무료로 개방되는 대중시민선원도 열었다. 서래각선원을 복원하기 위해 주지실도 내놓았다. 도인이 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주는 것이 사명이라고 믿기 때문이다.

향교 스님 제자로 3년 6개월간 조계종 특별선원 문경 봉암사 주지, 통도사 보광선원장 등을 역임한 스님은 선원 수좌 뒷바라지를 최상의 즐거움이자 보람으로 안다.

실천하는 불자 양성

선운 스님
밀양 자은사 주지
밀양사암면 회장

스님은 원전에 토대 둔 포교, 교육의 체계를 바로 세워야 한다는 생각에 틀나는 대로 원전 연구와 강의를 하고 있다. 밀양의 스님들과 신도들을 위해 아홉 교리를 강의할 계획으로 공간을 마련하고 있다. 불교사상, 실천, 체험을 통한 이론정비가 확고해야 불교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종교의 생명은 실천"이라고 늘 강조하는 스님은 종교가 현실 속에서 불교적 진리를 실현하기 위해서 사찰들이 힘을 모아 고민해야 한다고. 밀양불교발전을 위한 토론회, 원전 강의를 통한 불교기초 교리 강의 등도 이를 위해서다.

밀양 불교 '구심점' 지켜

해봉 스님
밀양 표충사 주지
해동종 종장

밀양 불교 사암면 회장을 3대에 걸쳐 6년 역임, 밀양경찰서 경승실장 9년 역임 등 밀양불교의 산 증인. 스님은 법회를 자주 열어 신심도 일고, 포교도 된다는 지론으로 사암면 회장 당시 만등법회, 방생법회, 보살계 법회 등을 꾸준히 열며 종단 화합을 도모했다. 스님은 요즘 사암면 활동이 저조하고 협조가 되지 않아 걱정이라며 어딘가든 열려야 토로했다. 옹정사를 22년 동안 일로써 수행 삼으며 대웅전, 보광전, 산신각, 용왕각을 갖춘 도량으로 일궈냈다. 해동종의 발전을 통해 지역불교에 기여하겠다는 각오다.

투명한 재정운영 '귀감'

만각 스님의 방엔 18년 전에 그린 봉암사 불사 조감도가 걸려있다. 지금의 도량을 보고 그런 듯 조감도가 현재의 봉암사와 정확

지역불교 이끄는 주역들

만각 스님
함안 봉암사 주지
함안불교연 회장

히 일할 정도로 스님은 20년 불사 계획을 수립하고 차근차근 진행해왔다. 투명한 불사를 위해 스님에게 특별한 장부가 있다. 스님은 장부 정리의 달인이다. 수기로 작성한 장부만 펼치면 신도의 법회 참석일, 불사금 내역까지 정확히 나온다. 이처럼 투명한 재정관리로 스님에 대한 신도들의 신뢰는 절대적이다. 법회종 총무원 재무부장을 10년 연속 지내고 있는 것도 스님이 그만큼 삼보정재 관리에 철저하기 때문이다.

제2의 고향서 포교 발원

광덕 스님의 만상좌인 스님은 광덕 스님 입적 후 5년 동안 불광사 법주를 지내다 최근 함안으로 왔다. 젊은 시절 함안에서 10여년을 보낸 스님에게 함안이 제 2의 고향인

지정 스님
함안 불봉사 주지

셈. "깨달음은 생활을 떠나 있지 않고 사회에 뛰어들어 울고 웃으며 대중들과 같이 호흡하는 속에 있다"고 늘 강조한다. 함안불교연 회장을 4년간 역임하면서 스님은 지금은 함안불교연 역점 사업이 된 6·25 전몰장병 천도제를 처음 시작했다. 불교회관, 어린이집, 유치원 등의 건립에 뜻을 두고 있기도 하다.

열린 사찰·편한 도량 추구

정안 스님
창녕 관룡사 주지
창녕사암면 회장

관룡사에 가면 누구든 차를 마실 수 있도록 차실이 마련돼 있다. 열린 사찰을

지향하는 정안 스님이 주지를 맡으며 생긴 변화다. 또 한 가지 변화는 관룡사 제 모습 찾아주기 불사 추진. 외관상 불사가 진행된 것 같지 않지만 지표조사나 사적지를 토대로 불사를 꾸준히 진행해 관룡사 원형 복원을 추진 중이다. 대형불사 보다는 '사람의 흥기가 느껴지는' 불사를 희망한다.

지역위한 일 찾기 몰두

원진 스님
창녕 청련사 주지
창녕사암면 총무

청련사 도량 곳곳에 보기 좋게 가꿔진 잔디는 청련사를 찾는 사람 누구나가 감탄사를 터트리며 혀를 내두를 정도. 모두 원진 스님 솜씨다. 관음정사, 표충사, 운주암 등에 살 때 은사인 목산 스님과 함께 한 가람정비 경험이 청련사 곳곳에 녹아 있다. 창녕불교사암면 총무직을 맡고 있는 스님은 일을 만들어가는 재주를 지녔다.

주지를 하고 있는 동안, 지역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는 생각에 오늘날 사암면 회원 사찰에 전화를 걸어 목소리 높이지 마다하지 않는다.

공부·봉사활동에 '올인'

신본 스님
통도사 창녕포교당
인왕사 주지

10년 일본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스님은 사찰 정비보다는 오히려 신도 교육 쪽에 역점을 두고 있다. 창녕 유일의 불교고양대학을 스님이 직접 지도한다. 수요일 주·야간으로 이어지는 경전반과 교리반, 목요일 참선, 일본어 강좌까지 스님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그런 스님의 노고가 헛되지 않아 불교고양대 동문들은 경로당 청소, 독거노인 밀방천 배달, 도시락 배달 등 대사회 봉사들을 통해 지역 내 불교의 위상을 한껏 높이고 있다. 어린이집 불사를 통한 불교 저변확대를 발원하고 있다.

문서포교 앞장...교육·복지 활약

정무 스님
밀양 옹공사 주지

밀양 불교의 일꾼. 동국대 선화과를 졸업하고 첫 주지 소임을 맡은 곳이 옹공사인 스님은 밀양불교의 일꾼을 자임했다. 밀양경찰서 내에 경승실을 만들고, 밀양에서는 처음으로 조계종 인가 교육기관인 밀양불교고양대학을 만들면서 밀양불교의 크고 작은 행사에서 없어서는 안 될 '감초'가 되었다.

특히 사보 <조선> 발간으로 문서 포교의 중요성을 일깨웠다. 복지를 향한 투자가 곧 포교로 이어진다고 믿는 스님은 노인복지를 위한 보호, 요양시설 건립을 발원하고 있다.

■헤일 스님의 탐사량 놀이터로 방치...청소 7년·사지복원 원력

창녕 술정리 동삼층석탑

창녕 술정리 주택가와 시장통을 잇는 길목에는 한 비구니 스님의 지극한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탑이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국보 34호로 지정된 창녕 술정리 동삼층석탑.

이 탑은 헤일 스님을 만나기 전, 동네 사람들이 마구 버린 담배꽂이에 시달리고, 시도 때도 없이 탑 위로 기어올라 장난을 치는 아이들의 기승에 몸살을 앓아 왔다.

그러나 7년 전 헤일 스님과 인연이 닿은 후 이 탑은 커다란 변화를 겪었다. 동네 놀이터로 전락했던 탑 주변이 문화재정의 예산

을 받아 정비사업에 들어갔는가 하면 스님의 노력으로 동탑 해체 복원 때 사라졌던 유리 사리병을 포함한 유물 14점을 38년 만에 국립중앙박물관 수장고에서 찾아내기도 했다.

헤일 스님의 순애보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탑에 대한 자료 조사는 물론, 그 탑이 있었던 사지에 대한 기록을 찾아 복원 불사를 발원하고 있다. 헤일 스님은 탐전문기와 함께 동삼층석탑을 자주 둘러보는 일도 잊지 않는다(사진).

인양사가 있었다는 기록을 확인한 스님은 이제 진신사리가 봉안됐던 창녕 술정리 동삼층석탑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탑이 되게 하기 위해 인양사 복원을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다.

